

# KDI “한부모 아동, 학업시간 관리 어려워…집중력은 향상”

### ‘가족 유형과 아동기 인적자본 형성’ 보고서 발표 학업 시간 관리 역량 평균치에 비해 8.5%p 낮아 주의집중 항목에서는 14.4%p ↑ …“우려와 달라” “가사 지원 서비스·부모 교육 등 정책 개입 필요”

한 부모를 둔 아동이 평균적으로 학업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 또래에 비해 집중력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우려와 달리 가족 유형 변화가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유형과 아동기 인적자본 형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0년에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시작

해 2016년에 이르기까지 7차례에 걸쳐 집계된 자료가 활용됐다.

가족 유형은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면 양부모 가정으로 두고, 이듬해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만 계시거나 모두 안 계시다면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했다.

분석에 사용된 아동 발달 척도는 건강, 학습 습관, 정서 문제,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또래 애착, 학교 적응,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 등 9개

분식 결과를 보면 학업 시간 관리(학습 습관), 주의집중(정서 문제)을 제외한 다른 발달 척도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바뀌면서 학업 시간 관리 역량의 표준편차는 0.32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평균치에 비해 8.5%p 낮아진 수준이다.

해당 문항은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나는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 등이다.

반면, 주의집중 부분의 표준편차는 0.738p(14.4%p) 상승했다. 여기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등의 문항을 활용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주의집중의 경우 아동이 한부모 가정이면 고질적인 부모 갈등에서 벗어나 애정을 지닌 보호자와 함께 살면서 개선됐을 가

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모가 심각하고 반복적인 갈등을 겪더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다는 통념과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족 유형 변화가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특히, 한부모의 과도한 가사 부담은 부모 역할 수행과 역량 증진에 시간적인 제약이 되기 때문에 가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개별적인 양육 고충이 단시간에 해소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KDI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관할 지역 내 부모와 자녀의 고민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담은 원격 자료를 압축적으로 제작한 후 교육 수요층의 관심 항목에 따라 이를 발송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부모 가정을 대하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도 강조했다.

KDI는 “교사는 개별 학생이 처한 학업적 어려움이 해소 되도록 학습 코치, 정서적 지원자, 부모 면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직무를 교육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수업 디자인, 온라인 강의, 대면수업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의 연계를 담당해야 한다”며 “아일랜드의 경우 일부 교사가 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보호자와의 잦은 대면을 통해 학생의 교육 환경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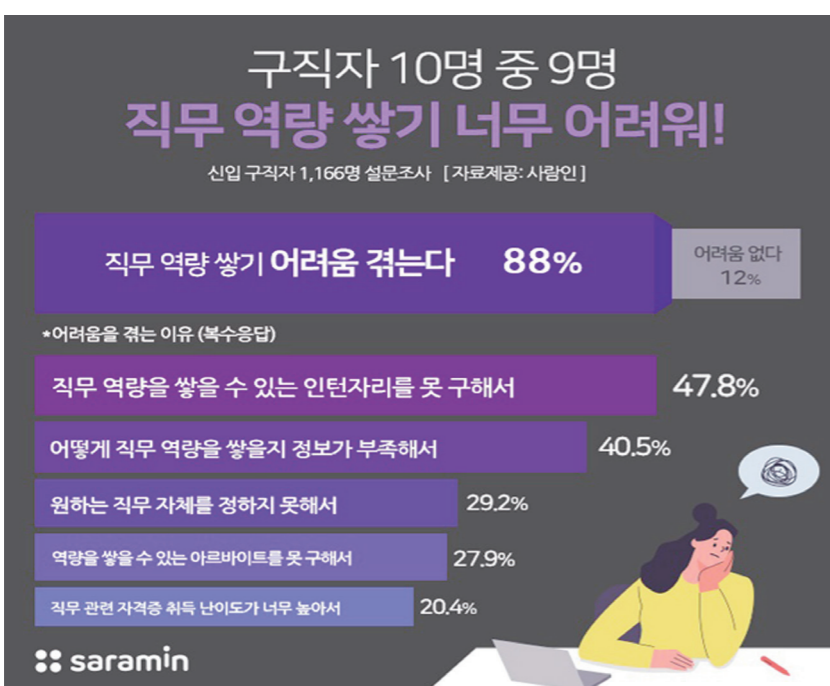
기동취재본부



사과-배 가격 고공행진 지난해 장기간 이어진 장마 등 여파로 사과, 배의 생산 및 저장량이 줄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오른 13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 “신입 구직자 10명 중 9명, 직무역량 쌓기 어려워”

‘직무 역량 쌓을 수 있는 인턴 자리 못 구해서’가 가장 많아



수시 채용이 확산되면서 현업에 빨리 적응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선호되는 가운데 신입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직무 역량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신입 구직자 1166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8%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하려는 직무별로는 ‘구매·자재’(95.5%), ‘영업·영업관리’(94.8%), ‘IT·정보통신’(92.6%), ‘광고·홍보’(92.1%), ‘인사·총무’(92%)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이 많았다. 반면에 ‘디

자인’(84.1%), ‘마케팅’(84.3%), ‘연구개발’(84.6%), ‘교육’(85.2%) 분야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낮았다.

이들이 직무 역량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인턴 자리를 못 구해서’(47.8%·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떻게 직무 역량을 쌓을지 정보 등이 부족해서’(40.5%), ‘원하는 직무 자체를 정하지 못해서’(29.2%),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못 구해서’(27.9%), ‘직무 관련 지식, 자격증 취득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20.4%), ‘코로나로 학원, 스터디 모임 등을 못 나가서’(13%)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직무 역량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구직자들(140명)은 그 이유로 ‘일찍 원하는 직무를 정하고 준비해서’(40.7%·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취업하려는 직무가 적성에 맞아서’(37.1%),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을 충분히 쌓고 있어서’(18.6%), ‘직무 관련 지식, 자격증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15.7%),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한 정보, 인맥이 충분해서’(12.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구직자들은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관련 자격증 취득’(48.8%·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또 ‘전공 공부’(38%), ‘관련 교육 이수, 학원 수강’(22.6%),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 쌓기’(22.6%), ‘관련 인턴 경험 쌓기’(18.5%), ‘관련 공모전, 프로젝트 등 수행’(7.5%) 등도 꼽았다.

이 가운데 ‘관련 인턴 경험 쌓기’를 선택한 구직자들(216명)은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 평균 1.7회 인턴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은 구직자들(263명)은 평균 2.8회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외에 직무 역량에 중요한 전공을 살려 취업하겠다는 구직자는 전체 응답자의 63.4%였다.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직무 역량 향상 방법으로는 ‘관련 인턴 경험 쌓기’(41.8%), ‘관련 자격증 취득’(21.9%),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 쌓기’(14.5%), ‘전공 공부’(9.3%), ‘관련 교육 이수, 학원 수강’(5.7%), ‘관련 공모전, 프로젝트 등 수행’(4.5%) 등을 꼽았다.

서선욱기자

## 넷플릭스, 국내 실적 첫 공개…작년 매출 4155억원

코로나19로 ‘방콕’하는 사람들 늘면서 가입자 폭증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수혜를 제대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전일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은 4154억5005만원, 영업이익은 88억2048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매출 1858억5162만원, 영업이익의 22억3176만원에 비해 각각 124%, 295% 증가한 것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은 2016년 한국 서비

스 출시 이후 처음이다.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한회사인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를 설립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공시, 외부감사 등의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직전 사업연도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새 외부감사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엔 공개했다.

넷플릭스 실적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로 소위 ‘방콕’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입자가 폭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넷플릭스가 2007년부터 시작

한 30일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지난 7일 완전히 종료하며 수익 확대에 나선에 따라 수익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 전세계 유료 가입자는 2017년 1억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말 2억3700만명을 기록했다. 이중 국내 유료 구독자는 380만명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한국 콘텐츠에 총 7700억원을 투자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 55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하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 1년 새 4배 오른 ‘슈파’…다음달부터 평년수준 회복

농촌경제연구원, 대파 산지 동향 및 전망 발표  
이달 중순부터 출하…당분간 높은 가격대 유지  
수입량 7배 ↑…“4~5월 봄 대파 조기 출하해야”



1년 동안 4배 가까이 치솟으며 금(슈파)과 불리고 있는 대파 가격이 이달 중순 이후부터 서서히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D)이 발표한 대파 산지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대파 평균 도매가격은 1kg당 4330원으로 3월 하

순 1kg당 4440원에서 소폭 하락했다.

올해 들어 장바구니 물가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대파가 그 중심에 있다. 지난달 초 소매기준 1kg 7600원까지 오르면서 평년 소매가(1900원)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비쌌다.

겨울 대파 출하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지만 한파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나뒀던 탓에 출하가능량은 전년이나 평년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다. 지난 3~4년간 대파 값이 폭락하면서 재배자가 감소한 것도 가격을 끌어 올렸다.

통상 4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봄 대파는 최근 따뜻한 기온으로 생육이 양호해 평년에 비해 출하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파 가격 강세로 신선 대파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548t을 수입하면서 전년 동기(73t)보다 7배나 증가했다.

봄 대파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수입 신선 대파가 시중에 풀리면 4월 중순 이후부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봄 대파가 대량으로 출하하는 시기는 5월이어서 그 전까지는 작년이나 평년보다 높은 가격대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5~7월 봄 대파 출하량이 평년보다 많아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대파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4~5월 출하 가능한 봄 대파를 조기 출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가장 많이 쓰는 쇼핑앱은 쿠팡…전 세대 1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쇼핑 앱은 쿠팡이었다.

앱·티티엘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세대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쇼핑 앱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쿠팡 앱은 쓴 사용자가 2158만명이었고 이들이 모두 80억회 실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번가(745만명), G마켓(577만명), 위메프(449만명), 티몬(422만명)이 뒤를 이었다.

쿠팡은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많이 쓰는 쇼핑 앱이었다. 10대는 쿠팡·에이블리·지그재그·11번가·무신사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20대는 쿠팡·

지그재그·무신사·에이블리·아이디언스·11번가 순으로 많이 썼다. 30대는 쿠팡·11번가·G마켓·위메프·티몬, 40대 역시 쿠팡·11번가·G마켓·위메프·티몬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50대 이상은 쿠팡·11번가·무신사·G마켓·GS SHOP 순으로 많이 썼다.